

ICT기반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이 기술개발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양선아*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

황보윤**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창업자가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ICT관련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CT창업의 경우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가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보유한 기술의 수준이 높으면 기술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ICT창업의 경우도 다른 창업과 다르지 않게 많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ICT기반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역량이 기술개발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을 통해 ICT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다양한 요인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기존연구는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였으며 최근 급속도로 늘어난 ICT기반 창업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ICT기반 창업자에 대한 적용은 시기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정의된 기업가정신 및 기술혁신역량의 구성요인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기술개발성과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 실증 연구하였다.

핵심어: 기업가정신, 기술혁신역량, 기술개발성과, 경영성과

1. 서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 35개국은 3년새 15.1%에서 11.9%로 실업률이 꾸준히 줄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10.0%에서 10.3%로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의 대부분이 실업률이 줄고 있고 회원국 중 청년실업률이 늘어난 곳은 한국을 포함해 터키, 노르웨이, 칠레 로 4개국뿐이다.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신설을 시작으로 과학과 기술의 혁신, 전 산업의 지능화, 제도개혁, 교육·공공·사회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ICT창업의 경우도 다른 창업과 유사하게 소규모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지

만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역량이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런 집중 교육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ICT 창업자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공개한 IT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시사점'보고서를 보면, 한국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2013년 기준 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다. 5년 이내 생존율은 25%까지 떨어졌다. 벤처기업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벤처기업 중 75%가 사업 초창기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2017, 한국무역협회).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서는 '아이코어'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 중이다. 아이코어란 대학과 연구소가 가진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미국 NSF(국립과학재단)가 시작한 창업지원 사업이다. 창조경제의 글로벌화, 과학기술 R&D의 사업화, 창조생태계의 고도화에 따라

*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 acena@nate.com

**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부교수 yun88@kookmin.ac.kr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이 주관해 한국형 ‘아이코어’의 도입 및 한국형 모델개발과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정리하면 기술창업의 경우는 기업가정신과 기술개발능력을 우선시한 창업 교육을 진행하여 ICT기반 창업자들이 테스밸리를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ICT기반 창업자들이 꼭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 소양과 기술과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즉 ICT소규모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역량이 기술개발성과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 연구 배경

본 연구는 ICT기반 창업의 경우 창업자가 기업가정신 및 기술개발역량을 갖추었을 때 기술개발성과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 큰 사회문제인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창업자들은 테스밸리를 건너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ICT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을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사업을 재기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이 사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창업자 개인이 창업에 앞서 준비해야 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역량이 기술개발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역량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기술개발성과, 경영성과를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에는 위험감수성 성향, 혁신적 역량, 진취적 역량, 사회적 네트워크 역량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고, 기술혁신역량에는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융합능력을 하위 요소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기술개발성과, 경영성과를 설정하고 기술개발성과는 기술성과, 제품완성도, 제품성과를 하위요소로 설정하였다. 경영성과는 재무성과 인지, 사업만족도를 하위 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간의 상호 관계에 따라서 10가지의 가설을 설

정하여 검증하였다.

3.1 이론적 배경

3.1.1 기업가정신의 개념

기업은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사업 기회를 찾아야 한다. 기업정신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스펀더가 최초로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여러개의 구성요소를 이루어진 개념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혁신적, 위험 감수적, 진취적으로 자원을 배분배하거나 재결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tevenson & Jallio,1990). 기업가정신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혁신적 역량>

혁신은 이전과는 다른 생각들로 전혀 다르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으로써 기업에서는 시장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기업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과정(Covin & Slevin,1991)으로 기업에게는 다른 특성들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Kurako & Hodgetts,2004).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이 참신성과 독창성을 반영하고 있다(곽기영, 2013). 혁신성이 없이 개발된 제품은 실패라고 할 정도로 혁신성이 중요하다(Frshammar & Horte,2007).

<위험감수성 성향>

위험감수성은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오래전부터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어왔다. 창업가를 ‘자신의 자본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고(Cantillon,1755), 위험 감수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했고(Covin, & Slevin, 1991), 새로운 사업의 불확실성에도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Dess et al.2007).

<진취적 역량>

진취성은 경쟁보다 앞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장에서 선점자의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말한다. 또한 경쟁자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쟁자보다 앞서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시장에서의 미래를 예측하고 시장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한 진취적 성향은 창업자나 기업에서 시장에서의 변화나 욕구를 예측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곽기영, 2013).

<사회적 네트워크 역량>

기회의 포착과 관련해서 인지심리학자들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관점으로 환경을 인지하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원 기반이론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형성은 기업의 어떠한 형태라도 자원을 모두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 주체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김재원,2006). 즉 효율적으로 외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소규모 기술창업 기업에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Liabilities of smallness).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적 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것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양영석·조상섭, 2009).

3.1.2 기술혁신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기술 혁신역량

기술사업화는 기술이 각 산업의 시장(Market)의 요구(Needs)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산업혁신으로 가게 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기업이 자체 개발하였거나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직접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방안이다.

기업이 보유해야하는 자원 중 기술혁신 능력으로 전략계획능력, 연구개발 능력, 자원배분 능력, 학습능력, 조직능력, 생산능력, 마케팅능력 7가지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Yam et al.,2004).

<기술사업화 역량>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한 사업화를 말하며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를 말한다. 기술사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정부지원 개발기술 또는 정부부처 보유기술의 상업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효율적인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박현우,조성복,설성수,2013).

<기술응용력, 기술 융합 역량>

기술 융합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혁신과 수익성, 경쟁우위 확보 등의 조직성과 달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ICT분야는 특히 융합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은 이미 다양한 사업에 접목되어 발전되어 가고 있다(이무순,2017).

ICT 기술의 융합은 각종 센서의 발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장비, 네트워킹 속도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으

로 주변의 모든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산업을 통합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유와 파괴적 혁신의 창출이 일어나는 새로운 산업 혁명이다. 이러한 융합은 기획에서부터 설계,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혁신적 ICT융합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플랫폼과 신시장을 창출하는데 적용하고 있다(이무순,2017)

3.1.3 기술개발성과의 개념 및 구성요소

3.1.3.1 기술개발성과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의 성과는 기술적 성공에서 더 나아가 기술의 사업화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때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Teece,1986).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개발과 기술이 사업화가 필요 요소로써 시장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을 최적화시키고, 장비나 시설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선하는 등 기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을 기술사업화의 성과로 정의하였다(Kumar & Jain,2002).

<기술성과>

기술측면에서의 성과는 제품에 내제되어있는 기술의 역량 기술개발 노하우, 특허, 개발기간, 개발인력의 역량 등의 개선 및 향상에 대한 성과물로 볼 수 있다(고영권,2016). 기술성과는 연구개발비용, 개발기간, 특허/노하우 축적 등의 기술적 결과물이다(고두균,2003). 또한 기술개발을 통해 쌓은 기술의 축적 및 내제된 가치를 기술사업화의 기술성과로 볼 수 있다(Anokhin et al.,2011). 벤처기업의 경우는 단순한 수치를 제공하는 재무적성과를 통해 성과 측정이 어렵고 비재무적 성과인 생산효율성, 출시능력이 기업성장의 지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ICT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기술성과라 할 수 있다(황두식, 2017).

<제품의 완성도>

ICT기반 창업의 경우도 고객의 니즈를 발견해서 고객이 원하는 기능이나 니즈를 기술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제품이 개발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경쟁사의 기술이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쟁자가 따라 올수 없도록 시장에서 선점하려면 제품의 완성도는 필수요소이다.

제품의 완성도는 제품의 기능이 사용하기 편리하며 오류가 없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제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다는 것은 완성도가 낮은 상태임을 뜻한다.

<제품 성과>

기술사업화의 제품화 성과는 경쟁사 공격대비 품질향상, 신규기술 습득, 고객학습 역량을 들 수 있다(Calantone et al.,1995). 대부분의 창업자는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인다(neven et al,1999). 또한 제품에 경쟁사대비 품질 향상된 제품을 완성도 있게 개발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성과는 경영성과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3.1.4. 경영성과의 개념 및 구성요소

사업초기에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바로 성과가 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사업 성과를 단순한 재무성과로 측정하지 않고, 재무성과, 고객 성과, 내부성과 등 재무적인 성과 뿐 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해야한다(이윤원, 외, 2009).

<재무성과인지>

기업의 성과평가 시 비재무성과지표와 재무성과지표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 하지만 다수의 성과관련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재무적 지표 이외에도 미래에 대한 성과에 대해 인지된 성과만족도, 만족도의 조직 유효성 등의 지표가 사용되기도 한다. 소규모의 ICT기반 창업인 경우 기술의 성숙도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재무성과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사업만족도도 재무성과로 볼 수 있다.

<사업만족도>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삶의 만족, 고객만족, 직무만족, 여가만족 등 다양한 연구는 있으나 사업만족도(Business Satisfaction)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대부분 정부 지원사업 등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여경은, 2015). 창업 3년차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업에 대한 기대와 실제 성과와의 차이가 곧 만족도의 결정요인이 된다(Cooper & Artz,1995).

벤처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액, 매출성장률, 매출이익률 및 투자수익률 등과 창업자의 만족도를 통해 주관적 성과를 사용하였다(Covin & Slevin,1991).

3.2. ICT기반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기존의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기업가 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기업가정신이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목받지 못한 연구 영역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기반의 ICT기반 소규모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술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이 연구를 통해 ICT기반 창업자에게 기술 외에 어떤 기업가정신 항목이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3.3. ICT기반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재무성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재무성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원혜숙, 2014).

청년창업자의 창업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청년CEO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했으며 기업가정신 중에서 성취 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 모호성인내력,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였다.

기업가정신이 창업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창업자의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자의 사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업만족도역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은실,2011).

3.4. ICT기반 창업자의 기술혁신역량이 기술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

ICT 기업 융합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CEO의 역량이 ICT사업화와 ICT융합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이무순, 2017).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역량 중에서 기술융합능력과 기술사업화능력이 기술개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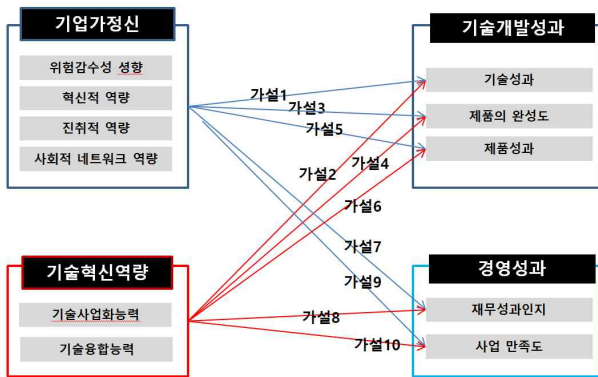
3.5. ICT기반 창업자의 기술혁신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 및 정보기술특성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혁신성이 경영성파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나 신생 창업기업과 같이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설립자 또는 경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창업기업의 창업과정 전체와 경영을 책임지는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여러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이선호,2015).

기존 연구는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외에도 건설, 토목, 석유, 섬유, 건강, 바이오, 화장품, 일반 소비자등 전 사업 분야를 ICT로 한정짓지는 않은 연구였고 기술에 대한 혁신성이 아니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성에 대한 연구로써 이번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다양한 사업 분야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6.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가설의 설정>

- 가설 1. ICT기반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기술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ICT기반 창업자의 기술혁신역량은 기술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ICT기반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제품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ICT기반 창업자의 기술혁신역량은 제품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ICT기반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제품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ICT기반 창업자의 기술혁신역량은 제품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ICT기반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재무성과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8. ICT기반 창업자의 기술혁신역량은 재무성과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9. ICT기반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0. ICT기반 창업자의 기술혁신역량은 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ICT기반 창업자의 기술혁신역량은 재무성과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ICT기반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0. ICT기반 창업자의 기술혁신역량은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 ICT기반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및 기술혁신역량이 기술개발성과 경영성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많은 ICT기반 창업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창업자들이 사업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기술창업의 경우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에 성공의 보증수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기술을 사업화를 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ICT기반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역량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요인이 기술개발과 경영성파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하였다.

ICT기반의 창업을 하고자하는 창업자는 기술만 가지고는 기술성과와 경영성파를 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역량을 갖추었을 때 기술성과와 경영성파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ICT기반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위험감수성 성향은 기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배경은 ICT기반 창업의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했을 경우 기술성과가 높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술개발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했을 때 시점을 선점하고 경쟁사보다 앞서 갈 수 있는 큰 핵심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요소 중에서 진취적 역량은 제품성과, 재무성과 인지,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취적 역량은 자신감 있게 능동적으로 경쟁자보다 앞서가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역량으로써 ICT창업의 경우 기술로 경쟁사와 차별화를 뒤야하는 ICT창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창업자의 역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취적인 창업자일수록 제품에 대한 성과와 재무성과 인지, 사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가정신 요소 중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역량은 제품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설문에 응답한 ICT기반 창업자들 중 73%이상이 6년 이상의 관련 업종 경험을 가진 창업자였다. 해당업종의 경력이 있는 창업자들이 직접 창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사회적 네트워크 역량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긴밀한 외부 파트너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의 성과, 제품의 완성도, 제품의 성과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술사업화능력과 기술융합능력은 4차 산업혁명에서 주목받고 있는 창업자의 핵심역량으로써 기술성과, 제품의 완성도, 제품성과, 재무성과인지에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유일하게 사업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 이유는 ICT기반 창업자의 경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자신이 개발하고 싶은 기술의 난이도를 높게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초기인 스타트업에서는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기술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ICT기반 창업자는 기술성과와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과 기술융합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기술성과와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할 창업교육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정하는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영권(2016). ICT 경영에서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영권(2016). 기술집약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서균(2009). IT중소·벤처기업의 R&D역량 및 기술사업화역량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연구 : 공공 R&D 수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승연(2017).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자 역량이 경영성과 향상을 통해 기업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두식(2017). 기술창업기업의 전략적 지향성과 네트워크 역량이 신제품개발성과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okhin, S., Wincent, J. & Frishammar J.(2011). A Conceptual Framework for Misfi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8(6), 1060-1071.
- Lumpkin, G. T., & Dess, G. G.(2001). Linking two dimension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o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al and industry life cycl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5), 429-451.
doi: 10.1016/S0883-9026(00)00048-3.
- Miller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